

5월 8일(월) / 고전4-6장

▶**내용요약:** 고린도전서 4장은 고린도교회 분쟁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일군이 가지는 자세와 태도를 언급하고 교회 안에서 분파를 형성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알려준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 아버지임을 확인하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가르친다. 5장은 고린도교회의 두번째 문제인 음행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음행한 자를 피하도록 하면서 교회의 영적 순결을 강조한다. 6장은 소송 문제를 다룬다.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지 말 것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가르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4장)

▶**생각하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4:16)고 한다. 우리는 과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성서인들이 되자!

5월 11일(목) / 고전12-14장

▶**내용요약:**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중요한 문제였던 성령의 은사를 다룬다. 12장에서는 은사를 분별하는 원칙에 대해 말한 후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며 유익하게 사용해야함을 권면한다. 13장은 사랑장으로 불리는데 은사가 유익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14장은 고린도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방언의 문제를 다루면서 방언을 예언의 은사와 비교하여 중요성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그러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이라”(13장)

▶**생각하기:**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과 유용성을 말하면서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한다. 즉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능력있는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은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가진 은사는 무엇인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자!

5월 14일(주일) / 고후4-6장

▶**내용요약:** 4장은 바울이 빛의 직분을 강조하면서 사도직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또한 사도직이 비록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많은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직분이기 때문에 미래의 영광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 내야할 것을 교훈한다. 5장은 앞장에 이어 고난을 견뎌낼 것을 권면한다.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을 비교하면서 현재와 내세의 생명을 대조하여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어 그리

5월 9일(화) / 고전7-9장

▶**내용요약:** 7장부터는 고린도교인들이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록된다. 7장은 결혼과 이혼, 독신생활과 과부의 재혼 등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와 율법 준수의 문제를 다룬다. 성도는 율법에 대해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연약한 자에게 해를 끼치는 방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을 강조한다. 9장은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특권이 있지만 이를 포기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자 노력했음을 고백한다.

▶**질문:**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는가?(9장)

▶**생각하기:** 9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 살았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였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복음전도자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함께 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은가?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호의를 가지고 다가가는 복음전도자가 되자!

5월 12일(금) / 고전15-16장

▶**내용요약:** 15장은 부활장으로 부활의 신비를 다룬다. 먼저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하면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성도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이자 증거가 된다. 이어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16장은 고린도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훈계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와 바울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다. 이어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기록된다.

▶**질문:** 바울은 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세요.(15장)

▶**생각하기:**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15:55)라고 반문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15:57)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부활을 통해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긴 승리자들이다!!

스도를 위해 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 화목할 것을 교훈한다. 6장은 바울이 복음 아래서 고린도교인들이 자신과 화해할 것을 권면한다. 그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만한 때요 구원 얻을 만한 때임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곧 화해할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며 빛의 사명을 잊지 말 것을 권면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누구든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5장)

5월 10일(수) / 고전10-11장

▶**내용요약:** 10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될 위험, 형제를 타락시킬 위험 등에 대해 경고한다. 결국 성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11장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는 문제를 다루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원리를 다룬다. 이어 성찬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고 성찬 참여를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함을 알려준다.

▶**질문:**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의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인가?(11장)

▶**생각하기:** 바울은 11장에서 성찬의 의미를 살피면서 자신의 삶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킨다.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그 분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그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5월 13일(토) / 고후1-3장

▶**내용요약:**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이다. 기록 목적은 고린도교회에서 일어난 근친상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한 연보를 권장하고 이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자 함에 있다.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안부를 물으면서 인사를 건네고 이어 자신의 사역과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이어간다. 2장은 바울이 목회자로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드러낸다. 또한 범죄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도 권면한다. 3장은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 기록하는데, 그 영광은 고난을 동반하는 영광임을 확인한다.

▶**질문:**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지 못해 그 심령이 편안하지 못했다고 하는가?(2장)

▶**생각하기:** 바울은 3장 3절에서 고린도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다. 이는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기:** 바울은 6장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다. 이처럼 역설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따라서 세상의 평가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하고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자!